

2020 년 3 월 22 일 “불 가운데서도”(단 3:19-30)

<도입>

선지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 왕국의 포로로 잡혀가 살았습니다. 친구들의 이름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였습니다. 오늘 3 장 본문의 주인공은 이 세 친구입니다.

[1] 이야기 전개

금으로 큰 신상(statue)를 만든 느부갓네살은 나라의 고관들에게 와서 절하라고 명령하며 절하지 않는 사람은 불 속에 던져 넣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재고하라는 말에도 그들은 강경하게 부정했습니다(3:16~18).

결국 그들은 화덕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왕이 불 속을 보니 네 사람이 걷고 있음을 보고 놀라며,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나오너라'(v.26)고 말했습니다. 불에서 나온 그들은 하나도 상한 곳이 없었습니다. 이 기적은 세 친구가 황제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이로 말미암아 왕은 세 친구의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왕이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었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은 많은 신들 중, 특별한 한 신이라고 인정했던 것입니다(구원을 받았다는 뜻도 아님). 또한 그는 세 친구를 높여 주었습니다.

[2] 영적 교훈

본문에 나오는 세 친구의 모습을 통해 어떤 영적 축복을 볼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1) 세 친구의 복장

21 절 -> 겹옷, 속옷, 모자, 다른 옷(개정개역) → 다소 formal

세 친구가 후에 구출되고 높임을 받는 결말까지 볼 때, 이 복장에 부여할 수 있는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Hartman 은 이 복장은 축제의 특징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형벌의 자리가 아니라 축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암시한다는 것입니다.

(2) 풀린 결박

화덕 밖에서는 황제에게 불순종한 종으로서 결박되었지만, 화덕 안에서는 자유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결박이 풀어졌습니다. 그들은 제국의 속박에 묶인 자가 아닌 자유자로서 존재함을 보여줍니다. 이에 왕은 '저들은 내가 시키면 하고, 죽이면 죽는 나의 종이 아니구나,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종이구나!'를 알았습니다.

(3) 불 가운데 거닐다

그들은 화덕의 불 속에서 다니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다니다'는 **창 3:8**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에 나오는 '거닐다'와 어근이 같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들은 정원을 거니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학자, Japhet 이 제안했고, Goldingay 가 동의한 통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들은 불 속에서도 에덴 정원을 누릴 수 있습니다. 화덕이 에덴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세상에서 가장 열악한 저주의 자리일지라도 거기에 임한 창조의 축복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이상을 정리하면,

축제의 복장을 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종들(제국의 종들이 아닌)이 자유로이 창조의 축복의 자리를 거닐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영적 실체를 선명하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단 장소는 화덕 안입니다.

그들은 불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불 속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 처한 코로나 사태로부터 멀어져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는 화덕 같은 상황 속에서 구원을 누릴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상황에 대한 비관과 불안의 결박을 풀어야 합니다. 내가 풀기를 원하고 구하면 주님께선 풀어 주십니다.

이 가운데서 사랑과 연합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대구 시내를 다니면서 마스크를 나눠주는 배우가 있습니다. 힘들지만 서로 탓하거나 화를 극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 속에 임한 사랑과 평안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져야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속에 임한 것이죠.

무엇보다 주님과 함께, 주님을 신뢰하며 행할 때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세속적이며 악한 것들이 판을 쳐도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겐 어떤 자리도 에덴의 정원과도 같은 곳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시 34:7 “여호와와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 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사 43:2 “네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고, 네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네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은 책 속에 갇힌 말에 불과한 말씀이 아니라 세 친구에게 임했던 살아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바이러스를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의 최선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말씀을 붙들으로써 삶 속에서 첫 창조의 축복을 누리며 새 삶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이 축복으로 삶이 견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눔의 질문> (아래의 질문 외에도 얼마든지 다른 질문과 함께 토의하실 수 있습니다.)

1. 3:16-18 에서 세 친구들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2. 현재의 판데믹 상황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무엇입니까?